



끝없는 감동, 황금빛으로 물든 벽골제서

오는 2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가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김제지평선축제가
23년의 세월을 품고
24번째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다.

김제지평선축제는
농경문화의 정체성을 계승
지역 문화유산을 축제로 연결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한곳 '지평선'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축제다.

이번 축제는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펼쳐져
끝없는 감동이
김제시 전역에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제지평선축제의 모태(母胎) 벽골제
김제 시민의 지속된 노력의 결실로 올해 24회를 맞은 김제지평선축제가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그 장대한 막을 연다.
김제지평선축제의 모태 벽골제에는 이전 년 전 이 땅에 치산치수를 통하여 민생의 안정을 꾀하려는 지도자와 민중의 염원이 담겨있다.
벽골제 축조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삼한 시대 마한인에 의해 처음 축조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며 고려 시대 문인 이재현의 문집 '역옹패설'에 '신라 진흥 대왕이 벽골제를 쌓고 도를 종합으로써 후인이 그 은덕을 상하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 만큼 벽골제는 수 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국가적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김제지평선축제는 민생의 삶을 우선으로 생각했던 조상들의 애민사상과 지혜가 합쳐진 벽골제 축조를 바탕으로 하며 이 두 유형, 무형 문화는 어언 24년 세월을 함께 나누며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과거와 현재의 히모니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다
김제시는 김제 고유의 농경 문화적 전통과 사상을 현 시점에 도입해 경제 발전과 문화 향상이라는 두 개의 목표가 일치되도록 김제 시민의 지혜와 상상력을 모아 전북권 4대 도시로 응모하는 김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 축제 참여를 통한 유형적 기쁨이 무형적 성과인 자본, 김제 경제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먼저 프로그램에 도입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축제 참여를 유도하고, 이벤트 경품으로 제공되는 지평선 쌀, 지평선 누룽지 등 농·특산물을 통한 김제 지평선 브랜드의 홍보 효과를 기대. 농·특산물 장터에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식품들을 판매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축제로 더욱 특별하다... 제24회 김제지평선축제



인석출다리기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올해 '플로깅' 첫 선
친환경적 요소 도입
유튜브 등 통한 홍보로
온라인 축제 장점 더해져



축제 참가자들의 소원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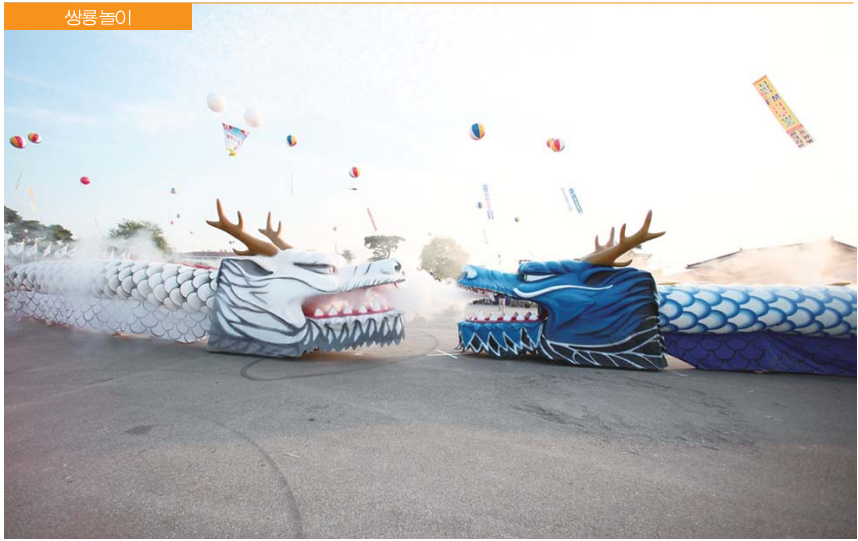
연을 날리는 외국인들

으로 펼쳐지면서 오프라인 축제에 온라인 축제의 장점이 더해졌다.
김제지평선축제 관련 유튜브, sns 채널을 통한 온라인 홍보로 신속하고 빠르게 젊은 세대를 공략한 홍보가 가능해졌고 온라인 사전접수를 통해 현장에서 체증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축제가 한층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앞으로의 계획
24년을 이어오며 발전과 향상을 거듭해온 김제지평선축제는 이제 지역 축제를 넘어 세계인이 모여 함께하는 축제로 우뚝 섰다.
김제시는 고유 프로그램인 벽골제 전통 생룡놀이, 풍년 기원 입석 출다리기, 지평선 아궁이 쌀밥 짓기, 연날리기 등 해마다 변함없이 진행되는 인기 프로그램과 지평선 코스모스의 이름다운 경관 조성을 통해 김제지평선축제만의 전통을 유지하는 한편, 관내 관광지 및 다양한 행사를 프로그램에 연계해 황금 들녘의 정서를 품은 안정적인 도시 김제가 움직이는 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매해 성장해오고 있으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제24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올해 연계형 프로그램을 구축하면서 '축제 확장'의 초석을 다졌다.

축제 행사장 참여를 넘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히 시간의 확장, 공간의 확장, 참여의 확장에 관심을 두고 더 크게 성장하는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끝없는 감동 다시 지평선에서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김제 들녘에는 축제의 뜨거운 열기로 곡식이 무르익는다.
제24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자연과 인문이 어우러진 공간, 황금빛 김제를 찾는 모든 이의 마음에 아름다운 추억과 끝없는 감동이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곽도태 기자



쌍룡놀이

▲팬데믹 후, 온라인 축제의 장점이 더해져 더욱 성장하다
지난 두 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단절과 소통의 부재로 경제, 나라에 흐르는 감정 기류가 하강 곡선을 그리는 시기였다.
축제 도시인 김제는 지난 2년, 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안전과 즐거움을 한꺼번에 거머쥘 방법을 선택했다. 이로써 고독한 군중이 온라인으로 연대하고 화합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온라인 축제가 탄생했다.
올해 제24회 김제지평선축제는 3년 만에 대면